

‘시험지 아줌마서 구의원으로..’ 홍미영씨 수기 <2>

3월9일, 등록과 함께 ‘홍미영 구의원만들기 18일작전’이 시작됐다. 목표는 전국 최다득표 1등 당선이었다. 2월초에 6월10일 투표를 예상하고 맞추어 짜놓은 ‘120일 작전계획표’는 잊어 버려야만 했다.

전국 최다득표 당선 목표

당장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실은 ‘발 묶인’ 자원봉사자들로 언제나 바글거렸다.

선거비용 문제도 구체적 현실로 다가왔다. 기탁금제도는 불만이었지만 ‘5% 이상만 득표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잘이는 대학선배한테 2백만원을 빌려 메웠다.

가능한 한 ‘몸으로 때운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최소 5백만

바중까지 뛰어다녔다.

젊은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워낙 약골인 내 몸이 보름 동안의 초강행군을 기적처럼 버틸 수 있게 한 에너지였다.

3월10일 “홍미영이란 인물이 출마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는 일인 만큼 꼭 자기가 해야겠다”며 동네청년 이낙원(27)씨가 현수막 걸기를 자원하고 나섰다.

도시락 싸들고 뛰는 자원봉사자에 감동

‘선거금지법’ 족쇄속 홍보전략 짜기 부심

기획·홍보·회계 등 역할과 사람을 나누어 정하기로 했다. 유권자는 1만9천7백명. 6개투표구별로 담당자를 정했다.

그러나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동네 거주민이 아니어서 23명까지 허용되는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등록증이 없으면 거리홍보에 나설 수 없는 까닭에 바깥일·내부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나누었다. 세평 남짓의 사무

원으로 파악된 나머지 비용은 주민회를 중심으로 기금을 모은다는 원칙밖에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리 자원봉사자들이라지만 세끼 밥과 손가락이 시리지 않을 만큼의 난방은 제공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새삼 내 빈주머니가 원망스러웠다. 당부자로 소문난 한 후보진영에서는 운동원들에게 하루 10만원씩의 활동비를 준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동원들은 각자 도시락 서너개씩을 챙겨들고 새벽부터 한

용접공장일을 조퇴한 그는 제작비를 줄이느라 회원들이 직접 천과 각목을 사다 만든 현수막 12개를 그날 따라 유난스런 바람 속에서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신 채 ‘명당’만 골라 내걸었고, 13일 다시 ‘기호 1번’을 새겨넣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현수막도 직접 제작

이번 선거법은 선거금지법이라 할 만큼 까다로웠다. 특히 호별방문이나 토론회를 금지한 까닭에 유권자들에게 ‘홍미영의



됨됨이와 공약을 알릴 유일한 수단인 벽보와 세 종류 홍보유인물만큼은 비용이 들어라도 최대한 잘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샘토론 끝에 ‘용감하고 성실한 우리동네 대모’ ‘용감하고 성실한 우리동네 살림꾼’ ‘동네살림을 알뜰히 꾸릴 수 있는 일꾼’이 선거구호로 선정됐고, 1차 인물 부각, 2차 공약제시, 3차 투표권유 등의 단계별 홍보전략도 세웠다.

공약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그리자고 제안한 한 여성 후배는 평소 전혀 알지 못하는 시사만화가 박재동씨와 이은

홍씨에게 막무가내로 매달린 끝에 귀한 승낙을 얻어냈다. 우리의 사기는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었다. 인천 시내에서 손꼽히는 촬영소에서 찍어온 내 얼굴사진을 본 순간 모두들 ‘마음씨 고약한 사감선생 같다’며 실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 언젠가 ‘자자제’ 관련 토론회에서 들었던 정치광고 전문회사 ‘파이론’의 이름이 떠올랐다. 무작정 전화를 걸어 자문을 요청했다.

우리의 다급하고 어려운 형편을 솔직히 털어놓자 30대 젊은

사장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한 번해보자”며 1천만원이 넘는 대행료 없이 무료 지원을 약속했다.

유권자 찾아 거리로...

파이론이 섭외해준 전문사진작가의 솜씨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의 후보 홍미영이 새롭게 탄생했다. 명함과 해님 여성회 소식지인 ‘해남’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든든한 무기가 준비된 셈이었다.

이제 유권자를 찾아 거리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